

〈일반논문〉

근대적 도시계획의 도입과 중국식 도시공간의 형성 - 세 차례 수도건설 계획을 중심으로 -

윤형진*

〈목차〉

- I. 서론
- II. 세 차례 수도건설과 도시계획 요소의 도입
- III. 질층과 변용 : 중국식 도시공간
 - 1. 南京의 수도계획과 '중앙정치구'의 위치
 - 2. '新京'의 건설과 '南面'의 문제
 - 3. 北京 도시계획에서 행정중심지 논쟁
- IV. 결론

[국문초록]

중국 도시공간의 특수성을 사회주의적 도시공간이나 전통적 도시구조의 유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근대국가 건설 과정의 질곡에서 비롯된 근대적 도시계획 요소의 복잡한 도입 과정은 기존의 중국식 도시 공간 형성에 관한 설명을 보완해 준다. 도입 경로의 복잡성뿐 아니라 중국적 상황과의 상호작용 역시 중국식 도시공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능묘의 조성, 행정중심지의 선정, '皇宮'의 건설 등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를 공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은 근대적 도시계획의 중국적 변형을 가져왔다. 세 차례의 수도건설은 새로운 도시계획 요소가 중국에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부교수

도입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도시계획 제도와 관행의 초보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도시계획의 변용 과정에서 도시와 관련된 전통적 관념이 강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전 시대의 도시가 남긴 물리적 유산은 전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주제어

北京, 南京, 長春, 新京, 수도건설, 도시계획

I. 서론

현대 중국의 도시 공간에 영향을 미친 과거의 유산을 두고 ‘單位’ 공간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설명하기도 하고,¹⁾ 성벽, 울타리, 中庭 등과 같은 전통 시대의 공간적 요소가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²⁾ 이 글에서는 현대 중국의 도시공간에 영향을

1) 개혁기 이후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개혁개방 이전, 혹은 주택의 시장화 이전에 형성된 중국 도시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급적이면서 기능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單位 공간이 비교적 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Piper Rae Gaubatz, “Urban Transformation in Post-Mao China: Impacts of the reform era on China’s urban form”, Deborah Davis, eds., *Urban Spaces in Contemporary China: The Potential for Autonomy and Community in Post-Mao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單位 공간의 형성에 대해서는 Duanfang Lu, *Remaking Chinese Urban Form: Modernity, Scarcity and Space, 1949–2005*, Routledge, 2006 참조.

2) 이러한 관점을 통한 대표적인 설명으로서 Yinong Xu, *The Chinese City in Space and Time: The development of Urban Form in Suzho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가 있다.

미친 역사적 요소로서 192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에 이루어진 근대적 도시계획의 도입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1950년대 이후의 변화를 강조하거나 19세기 이전의 전통을 강조하는 기존의 설명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민국 시기와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걸친 시기에 나타난 변화와 그 유산을 통해 기존의 논의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

도시계획은 19세기까지 주로 유토피아주의자들의 것이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운동가, 정부, 기업가, 학자, 건축가들의 영역으로 들어와 실제 도시 건설에 적용됨으로써 도시 공간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도시계획 이론이 형성되고 실천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중국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이 20세기 초중반에 겪었던 정치적 상황은 도시계획 요소의 도입 경로와 방식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수도건설’에 주목하고자 한다. 수도의 건설에 나타나는 이른바 ‘기념비적 도시’의 건설은 20세기 도시계획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³⁾ 게다가 ‘수도건설’이 반복되었던 정치적 상황 자체가 도입 경로가 매우 복잡했던 중국적 상황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또한 근대적 도시계획의 복잡한 도입의 과정 속에서 도시의 공간 구조와 관련된 전통적인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

20세기 중국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수도건설’로는 南京, 長春(‘新京’), 北京에서 이루어진 세 차례의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세 도시에서 ‘수도’를 위한 도시계획이 수립된 과정이나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적지

3) 피터 홀, 임창호·안건혁 옮김, 『내일의 도시: 20세기 도시계획 지성사』, 한울아카데미, 2005, 34-37쪽. 피터 홀은 ‘기념비적 도시’ 건설이라는 흐름이 1930년대에 정점이 달했다고 보고 있다. (위의 책, 242쪽) 물론 이 글에서 살펴보는 세 차례 수도건설의 내용에는 ‘기념비적 도시’라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전원 도시’나 ‘지역 도시’와 같이 20세기 도시계획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핵심적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않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⁴⁾ 이 글에서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세 도시의 도시계획을 ‘수도건설’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하여 통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근대적 도시계획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탐색해보고, 개별 사례를 넘어서 좀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도시계획사를 논의하기 위한 논점을 발굴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세 차례의 수도건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특히 ‘기념비적 도시’의 건설과 연관된 실천의 연속이라는 측면에서民国 시기와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의 도시계획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국민정부의 수도였던 南京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인 北京을 수도건설의 사례로 다루는 것과 달리 長春에서 이루어진 ‘滿洲國’의 ‘新京’ 건설을 수도건설의 한 사례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新京 건설에 대해서는 중국의 도시계획사의 맥락에서 파악하기보다 일본 제국 식민지 도시 건설의 사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서 그러한 시각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수도건설의 한 사례로 보는

4) 南京의 ‘수도계획’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王俊雄, 「國民政府時期南京首都計劃之研究」, 國立成功大學建築研究所博士論文, 2002; Charles D. Musgrove, *China's Contested Capital: Architecture, Ritual, and Response in Nanjing*,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3; 董佳, 『民國首都南京的營造政治與現代想像(1927-1937)』, 江蘇人民出版社, 2014 등을 들 수 있다. ‘新京’ 도시계획에 대한 선구적 연구이자 대표적인 연구는 越澤明, 『滿洲國の首都計劃: 東京の現在と未來を問う』,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1988이 있고, 중국의 연구로는 楊家安·莫畏, 『偽滿時期長春城市規劃與建築研究』,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7이 대표적이다. 北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北京의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 자체가 길고 복잡했기 때문에 앞의 두 사례에 비해 복잡한 연구사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국 초기의 논쟁에 대해서는 王軍, 『城記』, 三聯書店, 2003이 가장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영어와 일본어로도 번역되었다.) 또한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개설과 함께 핵심적 문건을 수록하고 있는 北京建設史書編纂委員會編輯部 編, 『建國以來的北京城市建設資料 第一卷 城市規劃(內部資料)』, 1987도 중요한 선행연구이자 핵심적인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것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도시계획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이 '만주국'이 가지는 침략적 성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의 다른 식민지 도시 건설과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으며,⁵⁾ 외국의 수도건설이나 중국의 국민정부 수도건설을 의식하는 실제의 수도건설 계획이 세워지고 계획에 따라 건설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 물리적 유산이 현대 중국의 주요 도시에 그대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세기 중국의 수도건설의 역사 속에서 新京을 다루는 일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수도 건설을 포함한 독립국가로서의 외양을 강조하는 것이 침략의 분식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의 성격에 수도건설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게 만들었으며, 이 때문에 후술하듯이 '도성'과 관련된 관념이 도시계획을 둘러싼 논쟁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도시계획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중국의 수도건설 사례의 하나로 다루는 것이 다소 낯설기는 해도, 전혀 근거 없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각각 다른 정권에서 이루어진 세 차례의 수도건설은 모두 외래적 도시계획 요소의 도입과 실천의 장으로 작용했다. 이는 중국에서 분열과 침략 속에서 새로운 국가 모델을 모색하던 시기가 근대적 도시계획의 세계적 확산과 겹쳐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계획의 주체와 계획 내용에 대한 개관에 이어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통해서 도시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근대적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통적 요소와의 관계 설정을 두고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세기 중국 도시

5) 식민지의 중심도시로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던 경성이나 타이베이와는 달리 '만주국'이 형식적인 독립국이기에 때문에 총독부 소재지가 아닌 '수도'로서 건설되었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도시 바깥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 했다는 점 등이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세 차례의 수도 건설과 도시계획 요소의 도입

1920년대 후반 南京에서 이루어진 국민정부의 ‘首都計劃’, 그리고 1930년대에 長春에서 이루어진 만주국의 ‘新京’ 건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北京에서 이루어진 수도 건설은 모두 외래적인 도시계획 요소의 도입 과정이었는데, 이 장에서는 주로 계획가와 계획 요소를 중심으로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928~1929년에 南京을 대상으로 입안된 ‘수도계획’은 막 北伐을 마치고 南京에 수도를 정한 국민정부가 대내외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즉 군벌 혼전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중앙정부가 등장했으나 여전히 전국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하게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하고자 하는 기획이었다. 또한 도시계획사의 측면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상징적 수도의 조성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한 것이기도 했다.⁶⁾ ‘수도계획’의 입안에는 미국인 도시계획가들과 미국에서 훈련받은 중국인 도시계획가들이 참여하면서 서구 도시계획이론이 도입되었는데, 그러한 이론들은 적용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혹은 전통적 도시계획의 전통과 절충하면서 변형되기도 하였다.⁷⁾

6) 상징적 의례공간으로 수도를 재편하는 도시계획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카시 후지타니, 한석정 옮김, 『화려한 군주: 근대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이산, 2003(T. Fujitani, *Splendid Monarchy: Power and Pageantry in Moder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60-63쪽 참조.

‘수도계획’의 입안 과정은 孫文의 아들인 孫科가 주도하였다.⁸⁾ 그가 ‘수도계획’을 주도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과 경험 때문이었다. 그는 廣州 시장으로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한 적이 있었으며, 이 때 참여했던 외국인 전문가들이 南京의 ‘수도계획’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孫科는 廣州 시장이 전에도 도시계획에 대한 글을 발표하여 오스망의 파리 개조나 비엔나의 개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孫科는 南京의 수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관철시켰고,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國都設計技術專員辦事處’(이하 ‘國都處’로 약칭)였다. 國都處의 책임을 맡은 인물은 하버드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林逸民,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范文照였고, 여기에 廣州에서 도시계획에 참여한 미국인 건축가 헨리 머피도 초빙되었고, 역시 미국인인 토목 전문가인 굿리치도 참여하였다. 이처럼 ‘수도계획’의 입안을 주도했던 것은 미국인 전문가와 미국에서 훈련받은 중국인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은 南京을 구미 각국의 주요 도시에 비견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수도계획’의 내용이 외국에서 시작된 도시계획을 선구적으로 중국에 적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1916년의 뉴욕 도시계획을 참고하여 조닝(zoning)을 적용하면서 ‘分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당시 미국에서 발전하

7) 국민정부의 ‘首都計劃’ 관련 연구 중 앞서 언급한 王俊雄의 연구는 정치적 상황과의 관계 및 중국에서 도시계획의 출발이라는 점에 주목한 종합적 연구이다. 그리고 Musgrove의 연구는 수도의 상징적 정당성의 구축에 주목하고 있다. 이 외에 ‘수도계획’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인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인 Henry K. Murphy에 대한 다음의 연구도 있다. Cody, Jeffrey W., “American planning in republican China, 1911-1937”, *Planning Perspectives*, 11, 1996; Cody, Jeffrey W., *Building in China: Henry K. Murphy's "adaptive architecture," 1914-193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1.

8) 이 문단의 南京 ‘수도계획’에 대한 내용은 주로 윤형진, 「南京國民政府의 首都建設과 近代的 都市計劃」, 『東亞文化』 48, 2010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다.

고 있던 파크 시스템을 적용하려 시도하면서 ‘林蔭大道’라는 용어로 이를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녹화된 도로를 통해 이를 연결하는 것을 중시하는 태도를 드러냈었고, ‘수도계획’에서 ‘전원도시’라는 성격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기존 성벽의 보존과 활용을 중시했는데 여기에는 머피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조닝, 파크 시스템, 전원도시 등 동시대 미국과 영국의 도시계획 사조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南京의 ‘수도계획’에 기반한 건설과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시작되어 시간적으로 겹치는 ‘新京’의 건설은 일본인 도시계획가들이 주도했다. 1932년 1월 21일 滿鐵 經濟調查會의 설립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관동군에서 만철에 의뢰한 것이었다. 만철 경제조사회의 기구 중 제3부 제8반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만주국의 수도 ‘新京’에 대한 도시계획은 이 기구에서 작성한 ‘立案調查書類’에 포함되어 있었다. 최종적으로 新京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은 1932년 11월이었다.⁹⁾ ‘新京’ 도시계획의 입안 과정에서는 많은 일본인 계획가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도쿄대 교수였던 사노 토시카타(佐野利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¹⁰⁾ 중국인들은 도시계획의 심의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¹¹⁾ 사노 토시카타는 만철의 초대 총재이자 일본에서 도쿄 도시계획에 깊이 관여한 바 있던 고토 심페이(後藤新平)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었다.¹²⁾ 사노 외에도 고토

9) 越澤明, 장준호 편역, 『中國의 都市計劃: 滿洲의 都市論』, 태림문화사, 2000, 116-120쪽.

10) 사노는 계획 수립 이후에도 國都建設局 고문으로서 5년 동안 新京의 건설을 지도했다.

11) 越澤明, 2000, 128쪽. 이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새로 점령한 華北 지역에서도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때 만주국에서 경험을 쌓은 기술관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尹炯振, 「일본점령기 北京의 도시계획과 그 유산」, 『서울학연구』 42, 2011, 82-83쪽.

대 교수였던 타케이 다카시로, 공원 및 도로 전문가 오리시모 엔키치와 곤도 야스오, 상하수도 전문가 사마 이사무와 오오이 세이치 등이 설계에 참여하였다.¹³⁾

‘新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도 건설의 선례였던 뉴델리의 캔버라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고, 南京 ‘수도계획’을 의식하는 면도 있었다.¹⁴⁾ 계획 내용을 보면 조닝 외에도 근린주구 이론, 위성도시 이론, 녹지대 계획 등이 나타나며, 코르뷔지에 이론의 영향도 발견된다.¹⁵⁾ 전반적으로 ‘新京’을 포함한 만주국에서의 도시계획은 일본인 계획가들에게 본국에서 실행하기 어려웠던 최신의 도시계획 이론을 적용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¹⁶⁾ ‘新京’ 도시계획에서는 200km²에 달하는 사업지역 및 계획구역에 조닝을 적용하였다. 그 중 절반을 차지하는 사업지역 중 47%는 관공청사, 도로, 공공시설, 공원, 운동장, 군용지 등의 관공용으로 구획되었고, 나머지 53%의 사용도 지역은 주거(27%), 상업(8%), 공업(6%), 잡종지(10%), 특종지(채소·목축, 2%) 등으로 구획되었다. 녹지대의 확보가 강조되었는데, 사업지역 중에는 9.4%가 녹지로 지정되었으나, 시가계획 구역 외의 지역 중 75.4%가 녹지로 지정되었다.¹⁷⁾ 그리고 도시의 사방으로

12) David D. Buck, “Railway City and National Capital: Two Faces of the Modern *Changchun*,” Joseph W. Esherick, ed., *Remaking the Chinese City: Modernity and National Identity, 1900–195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9, pp.84–85.

13) 취샤오판, 박우 옮김,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진인진, 2016, 359–360쪽.

14) Buck, 1999, pp.81–82. 만주국 건국을 주도했던 세력은 도시계획 뿐 아니라 정치 구조의 설계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국민정부와의 체제 경쟁이라는 면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참조.

15) 李百浩·郭建, 『中國近代城市規劃與文化』,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8, 59–60쪽.

16) 越澤明, 『滿洲國の首都計劃: 東京の現在と未來を問う』,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1988, 257–263쪽.

부터 접근 가능한 대형 광장을 설계함에 있어 코르뷔지에의 300만명을 위한 도시계획 등이 적극 참조되기도 했다.¹⁸⁾ ‘新京’ 도시계획은 일본인 계획가들에게 있어서 본국에서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웠던 도시계획을 대규모로 현실화하는 실험장이었으며, 관련 제도의 정비에서도 본국보다 더 선진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¹⁹⁾

1949년 北京을 수도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수도 北京의 도시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도시계획 사조의 중국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소련이라는 새로운 모범의 등장을 의미했다. 소련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건국이 공식적으로 선언되기 전인 1949년 9월에 이미 北京에 도착했다.²⁰⁾ 그리고 후술하듯이 행정 중심지를 둘러싼 梁思成과 소련 전문가들 사이의 갈등에서 첨예하게 드러나듯이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1950년대 초에 진행된 北京의 도시계획 입안 과정을 주도했다. 이들은 계획·설계 업무를 맡아서 주도해나갔던 것은 물론, 200회가 넘는 강의를 통해 도시계획 및 도시건설 간부의 훈련과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소련식 도시계획을 전파시켰다.²¹⁾ 도시계획 요소의 새로운 도입처가 등장했다고 하지만 결국 도시계

17) 越澤明, 1988, 128-132쪽.

18) 전진성,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도쿄·서울: 기억과 건축이 빚어낸 불협화음의 문화사』, 천년의상상, 2015, 416쪽.

19) 이러한 평가는 ‘新京’ 도시계획에 대해 선구적으로 연구한 越澤明이 제기한 것인데, 일본 근현대 도시계획사 전반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수용되고 있다 (石田頼房, 『日本近現代都市計劃の展開 1868-2003』, 東京: 自治體硏究社, 2004, 167-169쪽).

20) 北京市城市規劃管理局·北京市城市規劃設計研究院黨史徵集辦公室 編, 『北京市城市規劃管理局·北京市城市規劃設計研究院 黨史大事記(1949-1992)』, 北京市城市規劃管理局·北京市城市規劃設計研究院, 1995, 11쪽.

21) 한린페이(韓林飛), 「1950년대 북경 도시계획에 대한 소련 도시계획의 영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도시 공간의 형성과 사회주의 계획이론: 북한과 중국』,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4쪽.

획 요소들이 대체로 같은 출발점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北京의 도시 계획 내용이 南京이나 長春에서 실행되었던 도시계획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식 도시계획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중요한 예로 주거지 계획을 들 수 있는데, 1950년대 北京 도시계획에서 나타나는 거주구의 구체적인 형태는 소련식 계획의 영향이 컸다. 특히 직주근접을 강조하면서도 방호림을 설치한 다든가, 이른바 ‘大街坊(Super Bloc)’을 단위로 한다는 점도 이를 잘 보여 준다.²²⁾ 또한 사회주의 도시는 생산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대규모 공업 시설의 건설을 추진한 것도 소련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²³⁾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2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세 차례의 수도 도시계획은 각각 미국, 일본, 소련으로 도시계획 요소의 도입 경로를 달리하고 있었으며, 중국 도시에 대한 계획이었지만 모두 외국인 계획가들이 입안 과정을 주도했다. 또한 도시계획 요소의 공통 점에도 불구하고, 도입 경로에 따른 변형을 찾아볼 수 있다.

22) ‘大街坊’과 방호림에 대해서는 「市委關於改建與擴建北京市規劃草案的要點(1953.11.26)」, 中共北京市委政策研究室 編, 『中國共產黨北京市委員會重要文件彙編(1953年)』, 中共北京市委政策研究室(黨內文件), 1954, 50-51쪽 참조. 北京의 도시계획안 작성에서 중요한 준거가 되었던 모스크바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北京市人民政府都市計劃委員會 編, 『城市規劃設計參考材料: 關於莫斯科規劃設計』, 北京市人民政府都市計劃委員會, 1954; 김원, 『사회주의 도시 계획』, 보성각, 1998, 83-92쪽 참조. 58년의 ‘方案’에서는 주택구의 기본 단위가 ‘大街坊’에서 ‘小區’로 수정되었다. 北京建設史書編纂委員會編輯部 編, 『建國以來的北京城市建設資料 第一卷 城市規劃(內部資料)』, 1987, 37쪽 참조.

23) 한린페이, 2016, 3쪽, 8-13쪽.

Ⅲ. 절충과 변용 : 중국식 도시공간

외국의 도시계획가들이 주도하여 새로운 도시계획 요소를 도입했다고 해서 도시계획 과정이 투명한 이식이 되지는 않는다. 도시계획의 입안 과정에서 현지의 상황에 대응해야 하고, 또한 건설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작용하게 된다. 이 글에서 살펴보는 세 차례 수도건설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이 드러난다. 이 장에서는 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공간의 배치와 관련된 문제를 통해 절충과 변용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南京의 수도계획과 ‘중양정치구’의 위치

南京 ‘수도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논점은 이른바 ‘중양정치구’의 배치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과 중대한 계획 변경이 이루어졌다. ‘중양정치구’의 변경 외에도 다른 수정이 있었지만 대부분 ‘중양정치구’의 변경에 따른 것이었다.²⁴⁾

앞서 언급했듯이 孫科의 주장으로 조직된 전문가 그룹인 ‘國都處’가 1929년 말 ‘수도계획’의 초안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수도건설위원회’에 합병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주석은 蔣介石이 맡고 있었고 南京 시장이었던 劉紀文이 비서장이었다. 그리고 蔣介石, 趙戴文, 孔祥熙, 宋子文, 孫科 등이 상무위원이었다.²⁵⁾ ‘國都處’가 마련한 안이 정식으로 ‘수도건설위원회’에 제출된지 18일 만에 국민정부는 갑자기 ‘중양정치구’의 위치를 성 안의 明 故宮 지역으로 옮기도록 명령하였다.²⁶⁾ 그리고 이는 孫

24) ‘수도계획’ 수정의 구체적 내용은 王俊雄, 2002 第4章 참조.

25) 董佳, 90-91쪽.

26) 秦孝儀 主編, 『革命文獻 第92輯 抗戰前國家建設史料-首都建設(二)』, 中央文

科 측과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원래 ‘國都處’에서 만든 초안에서 상정한 ‘중양정치구’의 위치는 南京 성벽 中山門 동쪽이자 紫金山 남쪽이었다. 이 지점은 明 孝陵과 中山陵의 남쪽이기도 했다. ‘國都處’와 孫科는 이러한 입지 선정의 근거로서 북쪽의 明 孝陵 및 中山陵과의 관계와 함께 남쪽으로 넓은 대지가 있어서 확장에 유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그 외에 세계적으로 새로운 수도의 건설이 대체로 도시의 교외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안에 대해서 앞장 서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중양정치구’의 위치 변경을 주장했던 사람은 南京 시장이었던 劉紀文이었다. 그는 ‘國都處’ 설립 전인 1928년 9월에 이미 ‘중양정치구’를 明 故宮 자리에 건설해야 한다는 제안을 南京市의 시정회의에 제출하여 통과시킨 바가 있었다. 그로부터 15일 후에 『南京特別市市政公報』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劉紀文은 이 결의를 중앙의 모 ‘요인’에게 보고하여 확정하고 재정부장 宋子文의 지지도 얻었다고 한다. 이 ‘요인’은 蔣介石으로 추정되는데, 劉紀文의 오랫동안 그의 측근이었으며 南京 시장으로 임명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입지에 대한 반대의 근거로서 지형이나 안개 등의 문제가 제시되기도 했지만,²⁷⁾ 이와 함께 劉紀文은 明 故宮을 ‘중양정치구’로 정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明의 皇城이 매우 장엄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것이 남긴 ‘宮室之制’가 본받을 대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아울러 ‘國情不同’을 들어 서방의 건축·계획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인사들을 비판하기도 했다.²⁸⁾ 이처럼 중국적 전통, 특히 明이 남긴 전통을 이어갈 필요를 입지 선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제기하는 孫科와 ‘國都處’ 측에서도 전통

物供應社, 1982, 37쪽.

27) 田中重光, 『近代·中國の都市と建築』, 東京: 相模書房, 2005, 178쪽.

28) 董佳, 93쪽.

과의 관계를 무시하지는 않았다. 중요한 근거로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 터키의 앙카라, 인도의 뉴델리 등의 예를 들면서 새로 수도를 건설할 때 성 밖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²⁹⁾ 다른 한편으로는 明 孝陵 및 中山陵가 연계되어 있어서 ‘繼述之義’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³⁰⁾ 전통적인 한족 왕조의 뒤를 잇는 것과 혁명의 상징인 孫文의 뜻을 잇는 것을 동시에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중양정치구’의 선정이 단지 도시계획적 고려나 외국의 사례에 따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실제로 孫科는 ‘수도계획’ 초안이 입안되기 전인 1929년 7월에 紫金山 남쪽을 ‘중양정치구’로 결정할 것을 국민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³¹⁾

‘중양정치구’의 위치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대립과도 관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곽이 있는 기존 도시에 대해 도시계획을 세울 때의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즉 성곽 안에 있는 기존 도시를 행정중심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성곽 밖에 새로운 행정중심지를 건설할 것인지의 문제는 전통적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하며, 후술하는 北京의 사례도 유사한 면이 있다. 성곽의 문제 외에도 국민정부가 정치적 정당성의 근원으로 삼았던 孫文의 능묘가 ‘기념비적 도시’로서의 南京을 대표하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양정치구’의 선정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은, ‘수도계획’과 南京 건설을 외래적 도시계획 요소의 도입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9) 董佳, 97쪽.

30) 王俊雄, 2002, 216쪽.

31) 王俊雄, 2002, 212-213쪽.

2. '新京'의 건설과 '南面'의 문제

'新京'의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사실상 거의 유일한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도 정치적 상징공간인 '皇宮'의 위치였다.³²⁾ 만주국 국도건설국 측에서는 중국의 전통에 따라 북쪽에 위치하고 '南面'하는 구조를 주장하였고, 여기에 대해 경제조사회에서는 지형이나 기존 시가지와의 관계에서 다른 지점에 '南面'이 아닌 執政府를 건설하는 안을 만들었다. 양 측은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와 공동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을 계속하다가 임시 집정부를 만들고 후보지를 녹지로 보존하는 절충안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³³⁾ 이러한 과정은 南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정치공간에 대한 관념과 근대적 도시계획에 기반한 사고가 갈등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2년 1월에 만철 경제조사회가 설립되어 '新京'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32년 4월 만주국의 관련 부처로서 國都建設局이 설립되었다. 계획안의 작성 주체를 두고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초안을 만든 것은 만철 경제조사회였다. 그리고 계획안의 확정을 위해 관동군 특무부, 만철 경제조사회, 만주국 국도건설국의 세 기관의 사람들이 모여서 4차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³⁴⁾ 1932년 10월의 제2회 연석회의에서는 집정부의 위치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³⁵⁾ 국도건설국 측에서는 집정부의 남면을 강하게 주장하고, 교토대학 교수인 타케이 타카시로도 여기에 동의하였다. 또한 '南

32) 입안 당시에 溥儀는 황제가 아닌 '執政'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皇宮'이 아니라 '執政府'의 위치를 논의했다.

33) 越澤明, 1988, 127-128쪽.

34) 楊家安·莫畏, 2007, 30-31쪽.

35) 越澤明, 1988, 98쪽.

面'에 대해서는 당시 만주국 집정이었던 溥儀 측의 요구도 있었다고 한다.³⁶⁾ 그러나 만철 경제조사회에서는 17세기 이래 유럽 궁전의 설계와 관련하여 전망과 대칭을 중시하면서도, '南面'이라는 관념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논의와 새로운 수정안 준비를 거쳐서 11월 17일의 연합회에서는 杏花村에 임시 집정부를 건설하고 원래 경제조사회 측에서 제시했던 南嶺 등의 후보지는 녹지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³⁷⁾ 이처럼 기존 안의 후보지였던 南嶺을 궁전용지로 활용할 가능성을 남겨두긴 했지만, 1942년의 계획변경에서 이것도 사라지고 南嶺은 문교지구로 정리되었다. 이는 결국 '南面'을 주장했던 국도건설국 주장의 최종적 채택이라고 할 수 있었다.³⁸⁾

이처럼 '新京'의 도시계획은 일본인이 주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도시로서 '新京'이 가지는 위상 때문에 논쟁 끝에 전통적 관념을 적용하여 집정부를 배치하게 되었다. 집정부 배치 문제 외에도 '新京'의 계획과 건설 과정에서는 건축 양식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절충하게 하기도 했고,³⁹⁾ 이와 관련하여 건축 책임자가 권유를 받고 北京에 가서 자금성을 답사하기도 했다.⁴⁰⁾ 이러한 점에서 '新京' 도시계획에서도 역시 단순히 근대적 도시계획의 이식이라고만은 하기 어려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

36) 越澤明, 1988, 95쪽.

37) 越澤明, 2000, 127-128쪽.

38) 越澤明, 1988, 99-100쪽.

39) 하시야 히로시, 김제정 옮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북, 2005, 122쪽.

40) 니시자와 야스히코, 「만주국 정부의 건축」, 나카미 다사오 외, 박선영 옮김,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서울: 소명출판, 2013, 102쪽.

3. 北京 도시계획에서 행정중심지 논쟁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직후 北京의 도시계획에서도 행정중심지의 위치가 쟁점이 되었다. 南京, 長春과는 상황이 달랐던 점은 새롭게 상징적 정치공간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도시의 상징적 정치공간과 새로운 중심지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였다는 점이다. 梁思成을 비롯한 중국의 대표적 전문가들은 舊城의 서쪽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행정중심지를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방안은 일본 점령기에 입안된 ‘北京都市計劃大綱’을 통해 추진된 것과 같은 방향이기도 했다. 또한 北京의 전통적 도시 구조와 건축 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梁思成 등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소련의 전문가들이었다.

1949년 11월에 北京 도시계획을 위한 회의가 聶榮臻 北京 시장의 주재로 열렸는데, 여기에서 그동안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련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었고, 梁思成과 陳占祥 등 중국 측 전문가들도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소련 전문가들은 ‘北京의 장래 발전 계획 문제에 관한 보고’를 통해 기존 도시에 행정 중심지를 둘 것을 주장하였다.⁴¹⁾ 이 회의에서 나온 소련 전문가 대표 아브라모프의 발언에 따르면 毛澤東과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다고 한다.⁴²⁾ 이 회의 석상에서 梁思成과 陳占祥은 舊城 서쪽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행정중심지를 두는 안을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정부 측의 중국인 전문가들 역시 두 사람보다는 소련 전문가들의 안을 지지하였다. 1949년 12월 北京市 건설국장 曹言行, 부국장 趙鵬飛 등도 ‘북경시 장래의 발전 계획에 관한 의견’을 통해 소련

41) 王軍, 2003, 82-83쪽.

42) 王軍, 2003, 95쪽.

전문가들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⁴³⁾

이러한 반대 속에서 梁思成과 陳占祥은 자신들의 제안을 담은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950년 2월 두 사람이 작성한 ‘중앙인민정부 행정중심구 위치에 관한 건의’가 지도자들에게 발송되었다. 이 안에서는 기존 주장보다는 서교의 신도시를 좀더 가까운 곳을 옮기는 변화가 있었다.⁴⁴⁾ 이들은 4월에 周恩來에게도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⁴⁵⁾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동조를 거의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중국 전문가들이 소련 전문가들의 안을 지지하고 나섰는데, 北京市 건설국의 工程師인 朱兆雪과 건축사 趙冬日이 ‘4월 20일에 ‘수도건설계획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舊城에 행정중심지를 두는 계획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전통적인 도시의 유산을 활용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두 사람은 北京의 舊城이 중국이 천 년 동안 보존해 온 財賦와 예술의 보고이며, 舊城이 갖추고 있는 비할 데 없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규모와 근대 문명의 시설이 인민민주공화국의 수도로서 적합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소련 전문가들 주장과 다른 중국 전문가들의 지지 속에서 梁思成, 陳占祥은 고립되어 더 이상 북경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당의 지도자들도 舊城에 행정중심지를 배치한다는 안을 지지하였다.⁴⁶⁾

소련 전문가들이 신도시를 건설하여 행정중심지를 만드는 것에 반대했던 근거는 주로 경제적인 것이었다. ‘수도 건축 문제에 대한 건의’를 통해 소련 전문가들은 새로운 행정기관의 건물은 지금의 도시 내에 건축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 경제적으로 신속하게 정부기관의 건물 문제와 시

43) 王軍, 2003, 86쪽.

44) 王軍, 2003, 86-87쪽.

45) 王軍, 2003, 97쪽.

46) 王軍, 2003, 101쪽.

내 건축을 미화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⁴⁷⁾ 이들은 소련에서도 모스크바 옆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폐기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⁴⁸⁾ 결과적으로 北京에서 주요 행정기관은 天安門 광장과 長安路 주변 등 舊城의 중심지에 배치되었다. 물론 1950년대 후반에 天安門 광장을 조성하고 이른바 ‘10대 건축’이라고 불리는 상징적 건축물들을 건설함으로써, 기존 왕조의 정치공간을 포섭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수도의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⁴⁹⁾ 이는 지금의 北京에서 보듯이 증축선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 도시의 틀을 따르면서도 변형시키는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건국 초기에 선택한 北京 도시계획안은 보존보다는 활용에 기운 것이었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중화인민공화국 수도 北京의 도시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IV. 결론

이상에서 세 도시를 사례로 근대적 도시계획의 도입 과정에서 전통적 요소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47) 「中共北京市委關於蘇聯專家來京工作的情況向中央·華北局的報告(1949.12.3.)」, 中共北京市委政策研究室編, 『中國共產黨北京市委員會重要文件彙編(1949年·1950年)』, 中共北京市委政策研究室(黨內文件), 1955, 203쪽.

48) 「建築城市問題的摘要(摘自蘇聯專家團關於改善北京市市政的建議)」, 北京建設史書編纂委員會編輯部編, 『建國以來的北京城市建設資料 第一卷 城市規劃(內部資料)』, 1987, 120쪽.

49) ‘10대 건축’의 건설을 포함하는 ‘國慶工程’에 대해서는 윤형진, 「사회주의 수도의 건설과 주민생활-1959년 ‘國慶工程’과 철거·이주 문제」, 『中國近現代史研究』 81, 2019, 50-54쪽 참조.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도시공간의 특수성을 사회주의적 도시공간이나 전통적 도시구조의 유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근대국가 건설 과정의 질곡에서 비롯된 근대적 도시계획 요소의 복잡한 도입 과정은 기존의 중국식 도시공간 형성에 관한 설명을 보완해 준다. 도입 경로의 복잡성뿐 아니라 중국적 상황과의 상호작용 역시 중국식 도시공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농묘의 조성, 행정중심지의 선정, '僞'皇宮의 건설 등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를 공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은 근대적 도시계획의 중국적 변형을 가져왔다.

이 수도건설의 세 사례를 종합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리적 유산뿐 아니라 전통에 대한 관념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南京에서 明 孝陵 및 中山陵과의 관계가 '중양정치구'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明 故宮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南京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과 明의 제도를 본받을 것을 주장하였다. '新京'에서 침략의 주체인 외국인의 손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에서도 天子의 '南面'이라는 전통적 관념 때문에 근대적인 도시계획 요소를 중시한 초안에 중요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溥儀의 요구도 있었지만, 형식적인 독립국으로서 체제 경쟁 속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적 관념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도 개입되어 있었다. 北京에서도 전통적 유산을 활용하자는 것이 경제적인 요소와 함께 구성에 행정중심지를 두자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주로 물리적인 유산과 관련하여 전통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南京에서는 성벽의 보존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성벽 철거를 주장하는 측도 있었지만 오히려 외국인 전문가가 성벽 보존을 강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이는 보존의 대상으로서 전통적 도시의 유산을 바라보는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北京에서도 舊城 지역의 보존이 서쪽에 새로운 행정중심지를

배치하자는 주장의 주요 동기였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의 대상이 없었지만, 전통 도시의 물리적 유산을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도시계획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특히 北京에서는 일단 舊城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쟁점이 되었다. 이후 이른바 ‘國慶工程’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던 인민대회당의 건설에서 천안문의 높이와 인민대회당의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벌어진 바 있으며,⁵⁰⁾ 성벽의 보존과 파괴를 둘러싸고도 논쟁이 있었다. 또한 결과적으로 천안문 광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상징공간의 조성에서 전통의 유산을 활용하면서 개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2008년 올림픽의 시설물을 전통 시대부터 이어지는 중축선의 연장선에 배치한 사례도 있고, 또한 건국 초기에 현실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던 梁思成과 陳占祥의 계획 방안이 다시 활발하게 재조명 받는 것도 변화된 환경 속에서 도시 유산의 보존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활용과 보존 사이의 길항은 전통적 도시 유산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문제의 지속성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고찰한 도시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근대적 도시계획에 미친 영향 및 도시의 역사적 유산의 관계 설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세 차례의 수도건설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은 중국의 20세기 도시계획사를 좀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전통적 관념이 도시 설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의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활용 사이의 길항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점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의 도시계획을 민국 시기와의 연속성

50) 윤형진, 2019, 52쪽.

속에서 고찰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상의 분석을 좀더 확장하여 수도가 아닌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전통적 관념의 영향과 도시의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부분을 중국의 현대 도시 발전사의 한 요소로서 주목해서 살펴볼 가능성도 제기하고 싶다.

(2022.11.19. 투고 / 2022.12.10. 심사완료 / 2022.12.15. 게재확정)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Modern Urban Planning
and the Formation of Chinese Urban Space**

- Focusing on three capital construction projects -

Yoon, Hyong Jin

The specificity of Chinese urban space cannot be explained only by the legacy of socialist urban space or traditional urban structure. The complex introduction process of modern urban planning elements resulting from the difficulty of the modern state construction process complements the explanation of the existing Chinese-style urban space formation. Not only the complexity of the introduction route but also the interaction with the Chinese situation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Chinese-style urban spaces. The need to spatially solve the problems of political legitimacy, such as the creation of a tomb, the selection of an administrative center, and the construction of a palace, brought about a Chinese transformation of modern urban planning. The three capital construction plans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he introduction of new urban planning elements to China, and influenced the initial formation of urban planning systems and practices.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urban planning, traditional concepts related to cities had a strong influence. In addition, the physical heritage left by cities in the previous era continues to raise the issue of establishing relations with tradition.

□ Keyword

Beijing, Nanjing, Changchun, Xinjing, capital construction, urban planning

[참고문헌]

1. 사료

- 北京建設史書編纂委員會編輯部 編, 『建國以來的北京城市建設資料 第一卷 城市規劃(內部資料)』, 1987.
- 北京市規劃委員會·北京城市規劃學會 編, 『歲月回響(下): 首都城市規劃事業60年紀事(1949-2009)』, 北京市規劃委員會, 2009.
- 北京市城市規劃管理局·北京市城市規劃設計研究院黨史徵集辦公室 編, 『北京市城市規劃管理局·北京市城市規劃設計研究院 黨史大事記(1949-1992)』, 北京市城市規劃管理局·北京市城市規劃設計研究院, 1995.
- 北京市人民政府都市計劃委員會 編, 『城市規劃設計參考材料: 關於莫斯科規劃設計』, 北京市人民政府都市計劃委員會, 1954.
- 北京市地方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志 建築卷 建築志』, 北京出版社, 2003.
- 孫科, 「都市規劃論」, 『孫科文集』 第一冊, 臺北: 商務印書館, 1970.
- 長春市城市建設檔案館 編, 『長春城市建設回顧與研究』,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4.
- 中共北京市委政策研究室 編, 『中國共產黨北京市委員會重要文件彙編(1949年·1950年)』, 中共北京市委政策研究室(黨內文件), 1955.
- 中共北京市委政策研究室 編, 『中國共產黨北京市委員會重要文件彙編(1953年)』, 中共北京市委政策研究室(黨內文件), 1954.
- 秦孝儀 主編, 『革命文獻 第91輯 抗戰前國家建設史料-首都建設(一)』, 中央文物供應社, 1982.
- 秦孝儀 主編, 『革命文獻 第92輯 抗戰前國家建設史料-首都建設(二)』, 中央文物供應社, 1982.
- 華攬洪 著, 李穎 譯, 華崇民 編校, 『重建中國-城市規劃三十年(1949-1979)』,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6.

2. 연구서

- 김원, 『사회주의 도시계획』, 보성각, 1998.
- 북한도시사연구팀 엮음,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한올아카데미, 2013.
- 전진성,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도쿄·서울: 기억과 건축이 빚어낸 불협화음의 문화사』, 천년의상상, 2015.
- 한석정, 『(개정판)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출판부, 2007.
- 曲曉范, 『近代東北城市的歷史變遷』,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1(취샤오판, 박우 옮김,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진인진, 2016).
- 當代長春城市建設編輯部, 『當代長春城市建設』, 當代長春城市建設編輯部, 1988.
- 董佳, 『民國首都南京的營造政治與現代想像(1927-1937)』, 江蘇人民出版社, 2014.
- 楊家安·莫畏, 『偽滿時期長春城市規劃與建築研究』,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7.
- 王軍, 『城記』, 三聯書店, 2003.
- 李百浩·郭建, 『中國近代城市規劃與文化』,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8.
- 橋谷弘, 『帝國日本と植民地都市』, 東京: 吉川弘文館, 2004(하시야 히로시, 김제정 옮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북, 2005).
- 藤原書店編集部 編, 『滿洲とは何だったのか』, 東京: 藤原書店, 2006(박선영 옮김,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서울: 소명출판, 2013).
- 山室信一, 『キメラ—滿洲國の肖像』, 東京: 中央公論, 2004(아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 西澤泰彦, 『日本の植民地建築—帝國に築かれたネットワーク』, 東京: 河出書房新社, 2009.
- 石田頼房, 『日本近現代都市計劃の展開 1868—2003』, 東京: 自治體研究社,

2004.

越澤明, 장준호 편역, 『中國의 都市計劃: 滿洲의 都市論』, 태림문화사, 2000(越澤明, 『植民地滿洲の都市計劃』, アジア經濟研究所, 1978).

越澤明, 『滿洲國の首都計劃: 東京の現在と未來を問う』,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1988.

田中重光, 『近代·中國の都市と建築』, 東京: 相模書房, 2005.

Cody, Jeffrey W., *Building in China: Henry K. Murphy's "adaptive architecture," 1914-193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1.

Esherick, Joseph W., ed., *Remaking the Chinese City: Modernity and National Identity, 1900-195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9.

Hall, Peter, 임창호·안건혁 옮김, 『내일의 도시: 20세기 도시계획 지성사』, 한울아카데미, 2005.

Hujitani, Takashi, 한석정 옮김, 『화려한 군주: 근대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이산, 2003(T. Fujitani, *Splendid Monarchy: Power and Pageantry in Moder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Lu, Duanfang, *Remaking Chinese Urban Form: Modernity, Scarcity and Space, 1949-2005*, Routledge, 2006.

Musgrove, Charles D., *China's Contested Capital: Architecture, Ritual, and Response in Nanjing*,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3.

Naughton, Barry,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Xu, Yinong, *The Chinese City in Space and Time: The development of Urban Form in Suzho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3. 논문

윤형진, 「南京國民政府의 首都建設과 近代的 都市計劃」, 『東亞文化』 48,

2010.

尹炯振, 「일본점령기 北京의 도시계획과 그 유산」, 『서울학연구』 42, 2011.

윤형진, 「사회주의 수도의 건설과 주민생활-1959년 ‘國慶工程’과 철거·이주 문제」, 『中國近現代史研究』 81, 2019.

範耀邦·高霖, 「北京的城市住宅和居住區規劃」, 『城市規劃』, 1983-5.

王俊雄, 「國民政府時期南京首都計劃之研究」, 國立成功大學建築研究所博士論文, 2002.

張艷·柴彥威·周千鈞, 「中國城市單位大院的空間性及其變化: 北京京棉二廠的案例」, 『國際城市規劃』, 2009-5.

Cody, Jeffrey W., “American planning in republican China, 1911-1937”, *Planning Perspectives*, 11, 1996.

Gaubatz, Piper Rae, “Urban Transformation in Post-Mao China: Impacts of the reform era on China’s urban form”, Deborah Davis, eds., *Urban Spaces in Contemporary China: The Potential for Autonomy and Community in Post-Mao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